

아직 vs 이미 vs 벌써

아직 안 됨 / 여전히 · 이미 (사실) · 벌써 (예상보다 빨리)

한국어는 ‘이미’의 뜻을 둘로 나눕니다. 이미는 사실을 전하고, 벌써는 그렇게 빨리 일어났다는 말하는 사람의 놀라움을 더합니다.

한눈에 비교

단어	핵심 의미	말하는 사람의 느낌	자주 쓰는 형태
아직	아직 안 됨 / 여전히 — 예상한 변화가 아직 일어나지 않음	중립 (아직도 = 답답함)	아직 안 -았/었어요 아직 -고 있어요
이미	이미 — 어떤 시점 이전에 끝남	중립적, 객관적; ‘이미 늦었다’는 뜻인 경우가 많음	이미 -았/었어요 이미 늦었다
벌써	벌써 — 예상보다 이르거나 빠름	놀라움	벌써 -았/었어요? 벌써 ~이네요

차이점

- 아직 vs 벌써 — 같은 질문에 대한 반대 대답.** 밥 먹었어요?에 대해 아직 안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또는 벌써 먹었어요 (벌써 먹었어요)로 대답합니다. 과거형 동사와 함께 쓸 때 아직에는 거의 항상 안이나 못이 필요합니다. 진행 중이거나 현재의 상태와 함께 쓰면 ‘여전히’라는 뜻입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아직 자고 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 이미 vs 벌써 — 두 가지 ‘이미’.** 이미는 어떤 시점 이전에 일이 끝났다는 것을 감정 없이 전합니다: 기차는 이미 떠났습니다 (기차가 이미 떠났어요 — 그러니 늦었어요). 벌써에는 ‘이렇게 빨리?’라는 느낌이 담깁니다: 기차가 벌써 떠났어요? (기차가 벌써 떠났어요?!). 이런 느낌 때문에 감탄이나 질문에는 벌써가 자연스럽습니다.
- 가까운 미래에는 벌써만 씁니다.** 손님이 일어나서 가려고 할 때: 벌써 가요? ○ / 이미 가요? ×. 이미는 이미 끝난 일을 나타내므로 곧 일어날 일에 반응할 때는 쓸 수 없습니다.
- 격식 있는 글에서는 이미지를 씁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은 굳어진 표현에는 벌써를 쓰지 않습니다.

문장	아직	이미	벌써
___ 12시예요? 시간 정말 빠르네요.	×	△	◎
기차는 ___ 떠났습니다. 다음 기차를 이용하세요.	×	◎	○
___ 가요? 좀 더 기다리세요.	×	×	◎
보고서 ___ 안 끝났어요?	◎	×	×
___ 알려진 바와 같이	×	◎	×

◎ 자연스러움 ○ 가능 △ 어색함 × 틀림

한 걸음 더

아직도는 무언가가 여전히 그렇다는 데 대한 답답함이나 놀라움을 더합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벌써**는 ‘시간이 참 빠르다’고 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과 자주 함께 씁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3년이 됐어요 — 참고: -(으)ㄴ 지. 놀라움의 벌써는 -네요와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아직 하고 있다’의 아직은 다음과 어울립니다: -고 있다.

연습 문제

빈칸에 아직, 이미, 벌써 중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 영화가 ___ 끝났어요? 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다니!

정답 벌써 — 빨리 끝난 것에 대한 놀라움.

- 죄송하지만 그 상품은 ___ 품질되었습니다.

정답 이미 — 이미 끝난 사실을 공손하고 중립적으로 전함.

- 비가 ___ 오고 있어요. 우산 가져가세요.

정답 아직 — -고 있다와 함께 쓰는 ‘여전히’.

- A: 숙제 다 했어? B: 아니, ___ 못 했어.

정답 아직 — 못과 함께 쓰는 ‘아직 안 됨’.

- 우리 아이가 ___ 초등학교에 됐어요.

정답 벌써 — 시간이 빨리 지나갔다는 느낌의 ‘벌써’.

예문

- 아직 숙제를 못 했어요.
- 동생은 아직 자고 있어요.
- 벌써 가을이네요.
-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 회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 그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주 하는 실수

× 아직 먹었어요.

○ 아직 안 먹었어요.

과거형 동사와 함께 쓰는 아직은 ‘아직 안 됨’이라는 뜻이므로 안이나 못이 필요합니다.

× (가려는 손님에게) 이미 가요?

○ 벌써 가요?

어떤 일이 일찍 일어나는 데 대한 놀라움은 벌써입니다. 이미는 끝난 사실을 전할 뿐입니다.

× 벌써 알려진 바와 같이

○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격식 있는 굳어진 표현에는 이미지를 씁니다.